EV5·캐스퍼 등 전기차 인기…車 산업, 광주가 이끈다

지난해 내수 회복에도 수출 감소…제한적인 성장에 그쳐
전기차·하이브리드 판매 상승…친환경차 성장 가능성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위축되며 제한적인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판매량 상승세가 뚜렷해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 EV5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올 한해 산업 반등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협회·KAMA)가 발표한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자동차 내수 물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7만 7000대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와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 차 교체 지원 등 정책 효과와 함께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벗어나며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 여파로 2.3% 감소한 272만대에 그쳤다. 생산 역시 408만대로 전년보다 1.2% 감소했지만 유럽 친환경차 수출 확대가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이같은 흐름 속에 광주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서 시험대에 올랐다.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생산되는 EV5는 유럽 친환경차 수요 확대와 맞물려 중장기 수출 전략 차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동화 전환 국면에서 광주 자동차 산업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모델로 꼽힌다.

GGM이 생산하는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역시 소형 전기차 시장 회복의 수혜 차종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일본 소형차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등 지역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협회 발표 자료에는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54.9% 증가하며 2년 연속 역성장에서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가격 경쟁력과 도심형 수요를 겨냥한 EV5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실제 국내 친환경차는 지난해 1~10월 기준 전체 내수의 48.5%를 차지하며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됐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모두 아우르는 생산 역량을 갖춘 광주 완성차 공장들이 향후 국내 생산 기반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내수 169만대(전년 대비 +0.8%), 수출 275만대(+1.1%), 생산 413만대(+1.2%)로 모두 증가세 전환을 전망했다. 내수는 하이브리드 수요 지속, 전기차 보조금 규모 확대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역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로 하이브리드 시장 선호 확대, 유럽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은 광주에서 생산되는 EV5와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전략 차종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가격 우위를 기반으로 한 중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공세와 국내 시장 잠식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계 보호 무역 기조 속 수출 중심의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산업 공동화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그룹, 신년회서 체질 개선 다짐 성김(왼쪽부터) 현대차그룹 사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혜인 현대차그룹 부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신년회를 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사전 녹화된 신년 영상을 통해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지속적 체질 개선과 상생, 과감한 협력으로 산업·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다. 〈현대차 제공〉

'브랜드 출범 10년' 제네시스, 세계 누적 판매 150만대 돌파

최다 판매모델은 G80

제네시스가 브랜드 출범 10년 만에 세계 누적 판매 150만대를 넘어섰다.

5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세계 누적 판매량은 총 151만 368대로 2015년 G90 출시와 함께 브랜드를 출범한 이후 10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제네시스는 출범 5년 만인 2021년 5월 누적 판매 5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는 100만대를 넘어서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유럽·중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G80 전동화 모델과 GV60 등 차종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다변화한 것이 판매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힘입어 세계 연간 판매량은 2021년 20만 1415대에서 2022년 21만 5128대, 2023년 22만 5189대, 2024년 22만 9532대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제네시스 모델은 G80으로 나타났다. G80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50만 1517대가 팔리며 제네시스 차종 가운데 처음으로 50만대를 넘었다. 이어 GV70이 33만 7457대, GV80이 32만 2214대를 기록했으며 이들 3개 차종이 전체 판매량의 77%를 차지했다.

제네시스의 성장 요인으로는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아우르는 폭넓은 라인업과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상품성이 꼽힌다.

제네시스는 2015년 G90을 시작으로 G70·G80·GV60·GV70·GV80과 각 차종의 전동화 모델까지 갖추며 차종을 넓혀왔다.

제네시스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연간 판매 목표를 35만대로 설정하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브랜드 출범 이후 10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대를 달성했다"며 "한국형 럭셔리 브랜드로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수소차 보급 속도낸다…국비 5762억원 지원

기후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조기 확정…7820대 보급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올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 확정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보다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다.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기후부는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고상 1000대)와 승용 6000대, 화물·청소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부는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67기(액화 50기·기체 특수 17기)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 시설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660기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올해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국비 189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차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수소차·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

TS "자동차 실내공기 이렇게 관리하세요"

터널·지하차도 내기순환 유지 등 지침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5일 '실도로 주행환경 기반 차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도심, 고속도로, 터널 등 도로 환경별 차량 공조 설정 모드를 안내했다.

TS는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함에 따라 차량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 세부 내용은 정체 도심(신호대기·정체로 많은 오염물질 배출)에서는 내기순환모드 권장, 환기가 제한된 터널·지하차도 구간에서는 내기순환모드로 유지, 고속도로(정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외기 유입 모드 권장 등이다.

TS는 도로 주행 환경에 따른 차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운전할 때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기 유입을 차단하고 내기순환모드를 유지하고 장시간 주행 시 1~2시간 간격으로 1~2분 짧은 외기 유입 모드 권장, 휴식 등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차 실내 공기질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며 "급변하는 도로 주행 환경에 대응해 최적의 공기질 관리 지침을 제시해 국민이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타, 영국 앤서블 모션과 협약

금호타이어는 "영국 주행 시뮬레이터 전문기업 앤서블 모션(Ansible Motion)과 차세대 디지털 타이어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첨단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타이어 성능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기차·고성능 차량용 타이어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앤서블 모션이 도로 주행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기술을 보유한 세계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금호타이어는 앤서블 모션의 최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연구개발에 도입해 실차 시험과 시제품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성능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해나 기자 khn@